

OEHANA



www.pcce.wmu.edu Issu Date Nov-Dec. 2024



Table Of CONTENTS



04_

CHRISTIAN EDUCATION COLUMN

세대 간 신앙 전수를 위한 자녀 양육: Fowler
의 신앙 발달단계의 관점에서 / 송경화

10_

MY UTMOST FOR HIS HIGHEST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부르심

12_

PRAYER FOR CHILDREN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가족

14_

WEEKLY BULLETIN OF FAMILY WORSHIP

가정예배 순서지(11월, 12월)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

PCCE는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 전파하고 실현하는 기관으로 릴리재단(Lilly Endowment)과 World Mission University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PCCE는 미국내 한인교회와 한인가정의 기독교교육 그리고 1.5세와 2세 어린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가정예배와 세대간 예배의 보급을 통해 다음 세대를 거룩한 그루터기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리서치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크리스천 부모교육도 실시합니다.



세대 간 신앙 전수를 위한 자녀 양육: Fowler의 신앙 발달단계의 관점에서

여는 글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로서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종교성이 표현되는 구체적인 종교 전통과 예식은 부모, 사회, 문화를 통해 전수받게 된다. 일차적으로 신앙의 틀을 전해주는 사람이 부모 혹은 양육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 개인의 신앙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다. 종교심리학자인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는 개인의 신앙은 평생 동안 몇 번의 질적 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는데, 이 발달 과정은 인지적, 정서적, 관계적 발달 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격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결과적으로 자녀의 신앙 발달을 건강한 방향으로 촉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앙 발달을 저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신앙을 가진 부모는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바라지만, 신앙의 전수는 단순히 교리와 예식을 주입하고 강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신앙의 발달 수준을 잘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신앙이 전수되는 매개가 되는 자녀-부모 관계를 건강하고 신뢰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교육한다면 신앙의 세대 전수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 글에서는 세대 간 신앙 전수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발달 심리학과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펴는 글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보스턴 대학교(Boston College), 그리고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가르쳤던 신학자이자 목사이며 동시에 심리학자였던 파울러는, 당시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발달심리학자들인 피아제(Jean Piaget), 에릭슨(Erik Erikson), 콜버그(Lawrence Kohlberg), 길리건(Carol Gilligan) 등의 이론들을 신학적으로 탐구하여 인간의 성격, 인지능력, 도덕성 등의 발달과 함께 신앙 역시 단계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방대한 인터뷰와 연구를 통해 이를 체계화시켰다. 파울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영적 존재로 누구나 영성을 타고 나며, 이는 특정 종교적 배경과는 상관이 없다. 영성은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는 삶의 목적이며 의미이고, 타인과의 관계, 궁극적으로는 초월자와의 관계를 향하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성이다. 영성은 한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 문화를 통해 특정 모양의 종교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어떤 유형의 종교의 틀을 띄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모든 인간은 인지 능력과 관계성, 그리고 성격이 발달함에 따라 영성과 신앙도 질적인 변화를 겪으며 발달한다. 파울러는 전 생애를 통한 신앙의 발달 단계를 크게 7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각 단계를 미분화된 신앙, 직관적-투사적 신앙, 신화적-문자적 신앙, 종합적-관습적 신앙, 개인적-반성적 신앙, 통합적 신앙, 보편적 신앙으로 칭하였다.

이 중에서 파울러는 개인적-반성적 신앙의 단계가 대체로 청소년 후기나 청년기의 단계이고 그 이후의 통합적 신앙은 30대 이후 성인의 단계로 보았는데, 이 글이 성장 중인 자녀의 신앙 발달과 교육에 관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섯번째 단계인 개인적-반성적 신앙의 단계까지만으로 범위를 좁혀 각 단계의 신앙 발달의 특성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신앙 교육과 전수의 방법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부모-자녀 관계

파울러는 만2-3세까지의 단계를 미분화된 신앙(Undifferentiated faith)의 단계라고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아이의 인지 발달의 수준도 미성숙하고 언어도 유창하게 발달하지 못한 단계여서 신앙에 있어서도 언어가 아닌 느낌과 감각으로 어렵풋하게 형성하는 단계이다. 파울러는 이 시기가 신앙의 발달이라기 보다는 신앙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덕목과 성품들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이 발달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파울러에 의하면, 이 시기에 경험하는 부모와의 첫 상호 관계와 신뢰, 사랑 등은 아이 내면에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사회발달심리학자인 에릭슨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와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는 시기로서 이 때 형

형성된 기본적 신뢰는 아이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와 성격, 이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게 되지만,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환경이 충분하게 지지적이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불신감이나 수치심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애착심리학자인 보울비(John Bowlby) 역시 이 시기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통해 아이가 특정 유형의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이 때 형성된 애착 유형은 평생동안 아이의 인간관계 방식과 성격 특징으로 굳어진다고 말하였다. 정신과 의사이며 정신분석학자인 리주토(Ana-Maria Rizzuto)는 이 시기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투사되어 최초의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런 여러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 아이들은 양육자,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일평생 지속될 신앙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아직 인지발달이 미숙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교리나 성경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대신 양육자가 크게 신경써야 하는 것은 바로 부모-자녀 관계이다.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아이는 이 세상과 타인, 자신과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는 긍정적이고 편안한 성품,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안정적인 정서를 얻게 된다. 이 기본적인 신뢰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편안한 신뢰감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과 연결된다. 즉,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평생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게 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의 성격은 자녀에게 평생동안 유지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아이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고, 아이에게 무조건



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늘 수용적이고 용서하고 지지적이 라면, 이런 부모에게서 양육된 아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역 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수용해 주고 용서하는 분으 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엄격하고 불친절하 거나 거리감이 있고, 조건적으로만 사랑과 수용을 보여주었다 면, 혹은 처벌적이거나 비난형이고 심지어는 아이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 아이는 평생동안 하나님도 사랑보다는 벌을 주 시는 무서운 분으로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초기의 하나님 이 미지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원초적인 뇌에 깊이 각인되기 때문에 좀처럼 교육이나 설교 등을 통해서 수정되기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과 몸으로 느낄 수 없 는 경우는 대부분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무의식적 으로 각인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이후 교회 교육을 통해 배 운 하나님의 이미지와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3세 이전 아이를 양육할 때에는 신앙의 전수를 위해 명시적인 신앙 교육에 치중하기 보다는 아이와 따뜻하고 친 절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 아이가 기본적인 신뢰감과 안전 감, 그리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 이 중요하다.

2. 삶과 행동을 통한 신앙의 전수

파울러는 아이들이 언어를 익히고 상징체계를 알게 되고 서서히 인간관계를 넓혀 가는 3-7세에 직관적-투사적 신앙(Intuitive-Projective faith)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 는 언어가 발달하기는 하지만 아직 정교한 교리를 설명할 만 한 수준은 아니고, 감각과 이미지,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신앙 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며, 주변의 어른들의 신앙 행 위를 보고 배우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상상력과 환상이 아 주 중요한 매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활 용할 수 있는 신앙 교육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상상력이 그만 큼 강력하기 때문에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그 상상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 영향력도 아주 크다. 즉, 인간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탄이나 분노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끔찍한 지옥의 이 미지 등은 이 시기 아이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신앙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도덕적, 교리적 금지 사항이 나 의무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이 시기 아이들의 상상력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될 때 아이들은 평생동안 벗어나기 힘든 짐 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기는 신화적-문자적 신앙(Mythic-Literal faith)의 단계로서 이 때의 아이들은 소속된 공동체의 신앙 체계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발달한다. 이 와 같은 이 시기 아이들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유치원 단계의 아이들은 그림이나 동화 구연의 방법으로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초등학교 단계의 아이들부터는 본격적인 교리 교육이나 성경공부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 한 것은 부모를 포함한 공동체 성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 시기 아이들은 추상적으로 사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신앙 공동체의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배운다. 그러므로 롤 모델이 되어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배우는 것과 보는 것에 괴리를 느낄 때 보는 것에 더 신뢰를 주고, 이 괴리가 커질 수록 결과적으 로 배우는 것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가르 치는 대로 삶을 살지 않는 부모를 볼 때 아이들은 부모의 이중 적인 삶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교회 안에 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크게 다를 때, 아이들은 교 회 안에서의 모습을 가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신앙을 전수해 주는 부모에 대한 불신과, 그 부모 를 통해 전수되는 신앙 자체에 대한 불신과도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그림과 동화와 교육을 통해 신 앙 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와 어른들의 삶을 통해 그 신앙이 어떻게 일상에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 중요하다.

3. 공유하는 삶과 강요되는 신앙

청소년기에 아이들의 신앙은 종합적-관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으로 발달한다. 이전에는 부모나 가까운 어른들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면,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



이 지배적이었다면,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친구들의 경험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 훨씬 다양한 참조를 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신앙의 체계를 발전시킨다. 이 시기는 에릭슨에 의하면 자기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무언가 나름대로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이런 신앙 체계가 자아정체성을 세워 나가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신앙은 독자적이고 자립적이라기 보다는 자기가 경험한 다양한 것들을 종합하고 주변 환경에 순응하도록 발전시킨 모습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상당히 의존한 모습을 띤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인지발달이 완성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복잡한 교리와 성경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적극적인 성경 공부와 토론의 방법이 도움이 된다. 또한 소속된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는 신앙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공동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확실한 신앙 예식의 모습을 가르친다면, 그것을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많은 교육과 활동이 아이들의 신앙 발달에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 이 시기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기대를 지나치게 강하게 내면화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년기의 자율적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지나치게 강압적인 신앙의 주입이나 부정적인 평가, 지나치게 높은 기대 수준 등은 이 시기 아이들의 건강한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이 시기에 인간 관계에서 경험하는 배신과 거절은 신앙 발달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 관계 전반에 대한 실망과 철수

가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적용되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혹은 정반대로 인간 관계에서의 실망으로 인해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기대를 하고 집착적이 되기도 한다. 이 시기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밀한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염두하여, 부모나 교회 지도자들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인간 관계를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부모나 교회 지도자들과 맺는 관계를 친밀하고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신앙 발달에 도움이 된다.

청년기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점차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하기 시작한다. 파울러는 이 시기의 신앙의 모습을 개인적-반성적 신앙(Individuative-Reflective faith)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남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만의 신앙을 정립하려 한다. 그래서 이전에 단순히 받아들였던 공동체의 신앙 내용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비판하면서 받아들일 것과 거부할 것을 스스로 정하게 된다. 이전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 부모의 신앙, 주변의 신앙을 여과없이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자기만의 신앙을 찾아가는 단계이다.

청소년기까지는 신앙에 대해 수직적으로 가르치고 어느 정도의 강제를 사용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게 가능했더라도, 청년기에는 더이상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더이상 신앙은 외부의 강요로는 전수될 수 없게 된다. 이 때 청년이 된 아이가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부모-자녀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모의 신앙이 말 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롤 모델로 일상에서 제대로 기능했었다면, 청년기에 들어선 자녀는 스스로 그런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부모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면 청년기 아이들은 이 시기에 가차없이 신앙을 버리거나 자기 나름의 신앙 모습을 선택하는데 이는 그가 자라오고 배워왔던 신앙 공동체와는 상관 없는 모습의 신앙 체계가 될 수도 있다.

청년기 아이들이 형성하는 신앙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신앙은 아이들이 스스로 형성한 자주적 신앙의 모습이며, 그래서 그 이후 아이의 삶에 평생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시기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부모는 이 시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부모-자녀 관계의 질의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신앙을 강요하는 경직된 방법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공유하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된다. 즉, 신앙은 온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하며, 특정 날에 특정 예식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자녀들이 경험해야 한



Christian Education Column

다. 특히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자녀들은 신앙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탐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반항이나 의심으로 치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신앙적 성찰을 함께 공유한다는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 보면서 이 과정에 동참해 주는 것이 신앙을 잘 전수하는 부모의 역할이다.

닫는 글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몸, 인지 능력, 인간관계 방식, 성격이 발달해 나가듯이 신앙 역시 평생에 걸쳐 질적으로 다른 수준을 통과하며 발달한다.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자 하는 교회와 부모들은 주먹구구식으로 교리나 예식을 주입하고 강요하기 보다는 이런 자녀들의 신앙 발달의 단계를 잘 이해해서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신앙의 발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다. 자녀의 신앙 발달은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신앙과 하나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기를 처음 품에 안은 그 때부터 부모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아이를 하나님이 그러하듯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하고 수용해 주어야 한다. 이런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친절한 표정과 말투, 신체 접촉과 공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소통되어야 유효하다. 또한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교육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을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듣고 배워서 신앙을 얻는 게 아니라, 보고 경험해서 신앙을 습득한다. 그리고, 보고 경험하는 일차적인 대상은 바로 가정에서 마주치는 부모들이다.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라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므로 신앙의 전수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시작된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부모와 교회가 그 가르침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교육의 방식 뿐 아니라 삶과 관계의 방식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신앙의 효율적인 전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월드미션대학교
송경화 교수





My Utmost for His Highest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4)

그 누구도 '옛 사람이 죽는 무덤'을 지나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의 체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없다면 거룩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무덤만이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한 가지 목표, 곧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진실로 죽음의 마지막 날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감사의 아니라 진정으로 마지막 죽음을 체험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흥분 가운데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당신의 존재가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과 간절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자세를 멈추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동의합니까? 우리는 묘지를 스쳐 지나가지만 죽음으로 가는 것만은 언제나 거부합니다. 죽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롬6:3) 죽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속이며 거룩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 속에 마지막 날로 기록된 때와 장소가 있습니까? 이 장소는 고통스럽지만 예외적으로 감사한 기억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지요. 바로 내가 무덤에 들어간 날이며 하나님께 항복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전4:3).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거룩에 입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덤'입니다. 지금 그 '무덤'을 지날 의향이 있습니까? 오늘이 이 지구상에서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나님께 동의하겠습니까? 그 동의의 순간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부르심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사야 6:8)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곧 부르시는 분의 속성을 잊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다와 산과 거대한 해방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부름은 부르는 자의 속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르는 분과 같은 속성이 있을 때 그 부름이 들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만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 음성에 관해 자문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속성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개인적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것만을 고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때 나는 이사야가 있었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의 영혼은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

전히 맞추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놀란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음성만을 들을 귀가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깊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Prayer for Children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가족

아내(남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베필임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주님의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이들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남편)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내 뜻대로 양육하지 않게 하소서. 아내(남편)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돕는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소서. 아이들이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분냄과 조급함으로 다그치지 않게 하소서.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소망과 인내로 기다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아이의 감정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소서.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그래서 아빠(엄마)는 네가 하나님의 꿈으로 자라기까지 도와줄거야. 그리고 늘 기도할거야'라고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아이에게 필요한 기질과 은사를 부여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아이의 마음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선한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돕게 하소서. 무력과 폭언으로 아이의 의지를 꺾지 않게 하소서. 왜곡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지켜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듯이 나도 아이를 존중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람으로 아이를 기르며, 자녀는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많은 허물을 덮으셨던 것처럼, 부모님과 형제, 아내(남편)과 아이들이 범한 잘못과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2-25절)



시편 63:3~4 (11월 2일 본문)

01. 생명보다 소중한 것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해 주세요.

말씀 | 시편 63:3~4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찾아 멸하려는 원수들 때문에 메마른 광야로 도피했어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어요.

나눔 | 1.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무엇을 하겠다고 했나요?(4절)

2. 나는 어떤 때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느끼나요?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저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 가고, 하나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2.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 | 하나님, 단풍을 아름답게 물들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 가게 해 주세요.

말씀 | 시편 65:9~13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대자연에 베푸신 은혜와 복을 노래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비를 내려 땅을 촉촉하게 하시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만물이 풍성한 복을 누리니 그 안에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해요. 온 땅에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눔 | 1. 하나님이 온 땅에 베푸신 은혜와 복은 어떠한가요?(9~13절) 내게 특별하게 와닿는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세요.

2. 나는 주로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가까이 있는 창조물(하늘, 화초, 과일, 반려동물 등)을 보거나 만지며 하나님의 숨씨를 노래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만물이 번성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저희 입술에 항상 있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3.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기도 | 하나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복된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시편 70:1~5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는 자신을 도우시고 건지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기에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원수들은 강하고 시편 기자는 가난하고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도우시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뒤로 물러갈 거예요.

나눔 | 1.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다급히 요청했나요?(2~3절)

2.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드릴 기도는 무엇인가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신호임을 깨닫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4. 처음 사랑을 회복해요

기도 |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세요.

말씀 | 요한계시록 2:4~5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며 애썼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뜨거웠던 '처음 사랑'(첫 사랑)이 식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이웃 사랑'도 없기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나눔 | 1.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보시고 어떤 진단을 내리셨나요?(4절)

2. 예배와 성경 공부, 섬김과 봉사 등에 임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드러나는 열심보다 내면의 사랑이 더 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5. 구원의 새 노래를 불러요

기도 |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 주세요.

말씀 | 요한계시록 5:9~10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요한은 천상 예배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가 새 노래로 어린양을 찬양해요. 어린양이 사람들을 자기 피로 구속해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나라'가 되고 '제사장들'이 되어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할 거예요.

나눔 | 1.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양을 향해 드리는 새 노래는 어떤 내용이었나요?(9~10절)

2. 어린양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나눔 |

.....

.....

.....

기도 |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니 날마다 입술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과 발로는 하나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Storytelling

가족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6.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게 해 주세요.

말씀 | 요한계시록 8:3~5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놓인 금향로에 다 담겨요. 한 천사가 금향로에 제단의 불을 채워 땅에 쏟으니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때가 되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나눔 | 1.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에 천사가 제단의 불을 채워 땅에 쏟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3, 5절)

2.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드릴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세요. 하늘 보좌에 향기 나는 기도를 많이 쌓는 저희 가족 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7. 천국에서 부를 새 노래

기도 |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의 길을 익히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 | 요한계시록 14:1~5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요한은 어린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부르는 환상을 보았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144,000은 특정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더한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상징해요. 그들은 우상을 따르지 않고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거짓이 없고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나눔 | 1. 천상에서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을 모두 찾아 보세요(1, 4~5절).

2. 나는 예수님(어린양)을 따르고 있나요? 가정과 학교와 일터 등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어린양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실수투성이인 저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8. 죄의 도성 바벨론의 최후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예배 자리에 모였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세요.

말씀 | 요한계시록 18:1~5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며 온갖 죄를 저지르는 곳을 상징해요. 멸망이 예정된 바벨론에 머물면 그곳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해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해 이익을 취하던 왕들과 상인들도 함께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 속히 그곳에서 나와야 해요.

- 나눔** | 1.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곳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소굴로 변해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3, 5절)
2.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속히 떠나야 하는 자리(모임)는 어디인가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부를 쌓아 사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음란과 교만에 빠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9.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요

기도 | 하나님, 올 한 해 기쁜 일도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

말씀 | 요한계시록 21:1~4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없어요. 그곳은 생명과 기쁨을 완전하게 누리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나눔 | 1.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복(은혜)을 누리나요?(3~4절)

2. 최근에 내가 겪은 슬픈 일이나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주님께 털어놓고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어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죽음으로 괴로울 때 천국 소망을 더 크게 품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저희 가족 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P : (213) 388-1000
E : pcce@mail.com
w : www.pcce.wmu.edu

A : 500 Shatto Place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